

# 한·일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비교연구 \*

부산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남 윤 숙

目 次	
I. 序	2. 양장을 시작한 여성
II. 韓·日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比較 및 解釋	3. 傳統服의 改良
1. 여성양장이 시작된 시기	4. 女性洋裝의 大衆化
	III. 結 語

## I. 序

外來服인 洋服이 여성의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복의 양장화는 19세기 중엽 서양 문화가 유입될 당시 서양복과 함께 소개된 복장의 합리주의, 즉 신체 건강과 기능이 고려된 복장을 추구하는 정신이 服裝改良運動으로 구현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당시 한·일 양국의 사회상과 맞물려 여성 해방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복장개량운동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 20세기의 복장 혁명이라고 하는 여성복 양장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되었으며 서양 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였고 더욱이 日帝強占期를 거치는 등 지정학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복이 양장화되는 데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 양장이 시작된 이래 1945년까지의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II. 韓·日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比較 및 解釋

### 1. 여성 양장이 시작된 시기

여성 양장의 시작 시기는 일본의 경우 1872년,

한국의 경우 1899년으로 서양에 대한 門戶開放이 일본에 비해 늦은 한국에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성 양장의 시작이 시기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27년간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 여성복의 양장화의 속성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開港(1876)以來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등 西洋諸國과 통상 조약을 맺고 1900년대 초에는 박예스터, 河蘭史 등 미국 유학후 귀국하여 활동하는 여성도 있었으나 이들은 이후의 여성복의 변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개항이후 일제 강점기에 걸쳐 일본이 한국의 內政은 물론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한 당시의 여건을 볼 때 한국이 서양의 여러 나라와 직접적인 교류에 의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일본이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당시의 여건은 근대적 서양 문물을 일본을 경유하여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되었다.

### 2. 양장을 시작한 여성

한·일 양국에 있어서 양장을 시작한 여성들에 관해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분류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제도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양복 착용은 여성에 비해 남성복에서 우선하여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870년대에 군인 및 관원들의 제복이 양복으로 제정된 것에 비해 여성복은 1880년대에 제정되고 있다. 남자의 양복 제복 제정 당시 궁중에서 여성복의 양장화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남녀가 同席하는 모임이 빈번해지고 그 무렵 고조된 양장에 대한 열기로 인해 궁중 여성복의 양장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884년 궁중여관에겐 양복 착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며 1886년에는 皇族 및 大臣以下 각 부인의 大·中·小 및 通常禮服을 버슬(bustle) 스타일의 양복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왕후는 양장 예복을 숭선하여 착용하고 1887년에는 女性洋裝을 권장하는 내용의 思召書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양장에 대한 왕후의 관심과 숭선수범은 궁중 여관들간에 양복 착용자를 증가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양장 예복이 궁중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성 양장이 공인된 것으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 양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여성 양장에 대한 열기는 鹿鳴館의 영향이 컸다. 内外貴族 및 上流層의 사교장이었던 녹명관 및 정부 고관의 직책에서는 무도회, 사진회 등 서양식 집회가 빈번히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정부 고관이나 재계의 유명인으로써 당시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의 가족이었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은 물론 보수적인 궁중 여관과 귀부인들에게 양장을 권함으로써 1886년의 한 집회에서는 1,2인을 제외한 모든 여성이 양장을 할 정도로 상류층 여성의 양장열은 고조되었다.<sup>4)</sup> 따라서 당시 상류층 여성이 착용했던 복장 스타일을 녹명관 스타일, 그 시대를 녹명관 시대(1884-1889)라고 할 정도로 녹명관은 서

양 복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1886년 제정된 여성 양장은 궁중 여성 및 고관의 부인등 상류 계층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禮服이었다. 이와 같이 양복 착용 여성이 일부 특수층에 한정되고 양장의 용도가 예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성 양장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자 양복이 군복, 관리복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착용되기 시작한데 비해 여성복은 무도회복, 야회복 등 예복의 용도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예복의 특성상 여성 양장은 장식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더욱이 버슬 스타일 자체가 장식적 경향이 강하게 표현되는 복장이었으므로 당시 상류층 여성들의 자기 과시욕과 부합되어 여성 양장은 상당히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상류층에 국한되어 착용된 화려한 여성 양장은 世人들에게는 허영심으로 간주되어 일반 대중과 격리되는 요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녹명관 시대의 종언과 함께 그 모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880년대 후반 고조되었던 양장열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을 뿐 일반 여성의 양복 착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국에 있어서는 여성 양장이 제도적으로 기론되어 제정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年代未詳인 嚴妃의 洋裝寫眞이 있지만 이것 역시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론된 결과 착용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간 단체의 주도에 의해 여성의 양복 착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기록은 나타나고 있다. 1907년 중추원회의에서 남녀 의복제도 개선안이 가결된<sup>5)</sup> 이듬해 설립된 女子禮服擬正會(李鈺鄉, 黃袂禮, 尹高麗가 중심 인물)에서는 여성의 양장 예복에 대한 公募를 하였다.<sup>6)</sup> 공모된 案 중에서 선정된 것은 무릎까지 오는 짧은 길이에 허리를 강조한 princess line

1) 양복제복제정년대(일본) :

1870년 : 海軍, 1871년 : 陸軍, 遞卒, 郵便夫, 1872년 : 鐵道員, 1875년 : 法官, 1876년 : 官吏.

2) 昭和女大被服學 研究室, 近代日本服裝史, 近代文化研究所, 昭和51, pp.159, 524~528.

村上信彦, 服裝の歴史 II, 理論社, 1956, pp.142~143.

3) 昭和女大被服學研究室, 前掲書, p.159.

和歌森太郎外, 流行世上近代史, 雄山閣, 昭和 45, pp.67~68.

4) 제국신문 1907. 8. 13.

5) 황성신문 1908. 1. 28, 2. 12, 6. 12.

의 유펜스 스타일의 양복이었다. 이것을 實物製作하여 중추원에 송부하였는데 이것은 여성 양장이 법으로 제정된 후 전국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중추원에서는

“여성의 通常禮服이 公式正裝과는 다르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法슈으로 제정한 적이 없고 또한 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人民自由에 맡기도록 하라”

는 내용이 통보되었다.”

이보다 앞서 1898년 찬양회에서 제출한 상복 폐지에 대한 상소와 1906년 여자 교육회가 제출한 여자 의복 개량에 대한 案<sup>6)</sup> 등은 여자 의복의 개량을 급선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인허를 받지 못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볼 때 상기의 단체들의 의도는 과거 여성복에 대해 엄격했던 전통사회의 복장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1895년 양복 착용이 認許된 이래 공식복으로 제정, 착용되는 남자 양복과 같이 여성 양장도 법으로 정한 후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용시키려 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빠른 여성복 개량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식복 이외의 복장 개정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위임한다는 정부의 반응은 여성복은 공식복이 아니고 따라서 여성 양장이 정부 당국과는 무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여성의 양복착용이 공인, 계승되지 않는 않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여성양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양장 여성의 증가는 이후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양장이 제도적으로 공인된 후 궁중복과 상류층의 여성복으로 착용된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

은 과정이 생략되고 직접 일반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양상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非制度的인 측면

일본의 경우, 1884년 궁중 여관에게 부분적으로 양복 착용이 허용된 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 양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 양장은 이에 우선하여 1870년대초 妓女들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1872년 せいらん이라는 이름의 東京의 藝者를 시작으로, 長崎(1873), 吉原(1877), 下住南組(1885)의 기녀들로 이어지고 있다.<sup>8)</sup> 당시 歐羅巴는 여성복이 크리노린(crinolin)에서 베슬 스타일로 이행되는 시기였지만 이들 기녀들의 복장은 크리노린 스타일이었는데 양장이 진귀한 당시 손님을 끌기 위한 商術의 하나로 양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 양장은 1899년 연친 군수 조중하의 소설 및 정옥당을 시작으로 1900년대 리범진의 소설로 이어지고 있다.<sup>9)</sup> 이들 여성의 양장모습에 관해서는 자료의 미흡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당시의 신문기사에 의하면<sup>10)</sup> 상기의 두 여성이 중하류계층에 속하면서 장사를 하던 여성인 것은 확실하며 역시 손님을 끌기 위한 상술에서 양장을 한 반면 미국 생활을 경험한 리범진의 소설의 경우 편의, 위생의 측면에서 착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과 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과감하게 양장을 한 여성들이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의 양장이 제도적인 공인 이전에 창기나 상인, 소설 등 당시 사회적으로 특수한 신분 계층의 여성들로 부터 시작된 것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양장이 법으로 제정되어, 궁중 및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한 것은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에 있어서 기생, 상

6) 황성신문 1908. 8. 5, 8, 19, 11. 4, 대한매일신보 1908. 8. 5.

7) 황성신문 1908. 10. 15, 11. 4.

8) 제국신문 1898. 10. 12, 만세보 1906. 12. 2, 12. 20.

9) 대한매일신보 1907. 3. 9, 제국신문 1907. 3. 14.

10) 明治 ニュース事典 I, II, 毎日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86, p.33, p.451.

明治編年史編纂會編, 明治編年史 I, 昭和 16, p.427.

石山彰外, 寫眞にみる日本洋裝史, 文化出版局, 1980, p.300.

11) 남윤숙, 한국여성양장의 효시에 관한 연구, 복식 16(1991. 5), pp.135~138.

12) 매일신보 1899. 2. 15, 독립신문 1899. 5. 31, 제국신문 1900. 3. 7.

인, 권력자의 칩, 궁중 및 상류여성 등 일부 특수층에 국한되어 시작된 여성 양장은 그 당시 일반 여성의 양부 착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다. 사회적으로 특수한 신분 계층의 여성들의 양장은 충격적이었지만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착용의 기대감은 불러 일으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류층 여성중심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장은 일반 대중에게는 위화감으로 작용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양복이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작용됨으로써 이후 여성복 양장화에 필요한 의식변혁의 기초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3. 傳統服의 改良

여성복이 전통복에서 양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장 개량이 1차적으로 달성된 결과 나타난 것이 전통복의 형태가 개선된 개량복이었다.

#### 1) 韓服型改良服

한국에 있어서 전통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제국신문 1898. 10. 12),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05년<sup>13)</sup>으로서 이후 제안된 여러가지 복장에 대한 개선안 중에서 일반 여성들 간에 널리 착용된 것이 통치마 적고리였다. 이것은 그 당시 착용되던 전통한복의 문제점 즉 극단적으로 짧고, 길었던 적고리 및 치마의 길이가 조정되고 자락치마가 통치마로, 치마허리가 조끼허리로 개조됨으로써 치마허리로 인한 인체의 압박과 그에 따른 건강상의 폐해등의 단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통한복의 형태를 개량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통한복의 단점이 개선되고 간편성 및 기능성이 가미된 통치마 스타일의 복장은 1900년대 중엽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sup>14)</sup> 여학생, 신교육 받은 여성, 전도 부인등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制服이나

職場服 등 활동복으로 착용이 확산됨으로써 여성의 대표적인 活動服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 2) 和服型改良服

일본에 있어서 복장개량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日本衣服改良會가 설립된(1885) 이후이다.<sup>15)</sup> 또한 녹명관 시대가 끝난 1900년대에는 녹명관 양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和·洋服에 대한 장·단점이 논의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복에 대한 관심과 개량의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그 결과 傳統和服이 개선된 개량복의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지적된 전통화복의 단점은 필요이상으로 긴 소매(長袖), 裙, 가슴과 배에 중압감을 주는 帶 등은 활동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저해하고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하여 신체를 쇠약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案 중에서 채택되어 널리 사용된 것이 海老茶袴 스타일이다. 이것은 원피스식의 화복을 화복의 상의와 袴의 하의로 구성하여 外見上 투피스 식으로 개조한 것이지만 전통 화복의 기본형은 유지되는 것이었다. 帶가 배제되고 長袖가 筒袖로 되었으며 스커트 부분이 袴로 대체되는 등 전통화복의 형태를 개선한 袴스타일의 개량복은 건강상의 폐해가 개선되고 기능성이 가미된 것이었다.

袴 스타일의 개량복은 처음에는(1870년대) 남자의 袴를 그대로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저항감이 컸었지만 海老茶色(검은 자주빛, 검은 색을 띤 적갈색)의 袴는 女袴로서 '무'가 없으므로 左右로 분할된 男袴와는 달리 筒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다운 것으로 인정되었다.<sup>16)</sup> 당시 신선하고 진보적인 여성의 상징이었던 이 袴는 전통 화복에 비해 기능적인 데다가 상류층 여성인 궁중 여관이 착용하던 緋色の 袴와 흡사하였으므로 그 당시 일

13) 제국신문 1905. 5. 20, 1906. 5. 31, 7. 13, 11. 11, 만세보 1906. 11. 23.

14) 개량복으로서의 통치마 스타일의 복장이 최초로 착용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여학생복으로 착용된 것이 1906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으며(제국신문 1906. 6. 12, 만세보 1906. 7. 4), 복장개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05년 이후이므로 본고에서는 통치마 스타일의 복장이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1900년대 중엽으로 기술하였음.

15) 女學雜誌 8號(明治 18. 11), p.145.

16) 村上信彦, 前掲書 II, pp.145~147.

17) Erwin Von Böhlz(1849~1913): 獨逸人의사, 1876년 來日한 이래 20여년간 일본여성의 체격에 관해 연구, 1899년 '일본인의 자세와 의복'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당시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것으로서 일본의 여성복 개량에 영향을 주었음.

본인의 정서에 부합되었다. 더욱이 여성복개량을 역설한 사람이 일본사회에서 권위있는 Bötzl<sup>2)</sup>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됨으로써 海老茶袴 스타일의 복장은 1900년대 이후 여학생, 직장인 등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복장이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통치마 및 海老茶袴 스타일의 복장이 여성의 활동복으로 착용이 확산된 것은 전통복에 비해 간편하고 기능적이라는 편의성 이외에 전통복의 기본형이 유지된 점이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통복에 비해 양복은 간편하고 기능적인 장점이 인정되지만 이제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양장으로 바꾸는 것이 곤란했던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통복의 기본형이 유지된 범위에서 형태 개량이 이루어진 개량복은 착용이 보다 수월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같이 개량복은 당시 여성복에 대한 사회 의식, 즉 사회 정서와 부합되었으며 또한 신선하고 진보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널리 착용되어 일상복이 양장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 대표적인 여성 활동복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치마 및 海老茶袴 스타일의 복장은 여성 양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나타난 과도기적인 복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통치마 및 海老茶袴 스타일의 복장이 당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량복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대두되어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었지만 전통복의 단점이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통치마의 조끼허리의 경우 이전에 비해 가슴의 압박은 적어졌지만 저고리를 입은 후 가슴이 불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편이나 단추를 꼭 끼워야 했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海老茶袴의 경우 역시 가슴 부위에서 매도록 되어 있는 착장법은 종래 화복의 帶로 인한 단점이 보완된 것이지만 여전히 가슴부위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1차적으로 복장개량이 달성된 결과 나타난 이들 개량복에 여전히 상기의 단점이 남아있고, 더욱이 서양식 근대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의 복장이 개량복 수준이라는 것은 과도기적인 개량복이 갖는 한계점이고 이것은 앞으로 여성복의 개량이 더욱 진전되어 결과적으로 복장 개량의 표본이었던 양복을 착

용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4. 女性洋服의 大衆化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 양장의 시작이 기생이나 소신, 상인, 상류층의 여성 등 일부 특수층에 한정된 데 비해 1920년대 이후에는 양장이 일반인의 생활과 밀착된 여성들 즉 여학생, 사무원, 여교사 등 평범한 일반 대중 여성에게 확대되었으며 당시의 양장은 간편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이었다. 이와 같이 간편하고 기능적인 양장 스타일을 일반 대중 여성이 착용하게 된 것은 여성 양장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歐美에서 추구되어온 복장의 합리주의 정신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적으로 구현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여성복에 요구되었던 간편성, 기능성은 바우하우스(Bauhaus)에 영향받은 機械産業時代의 모더니즘(modernism)과 연결되어 새로운 스타일 즉, 크리노린, 비슬 스타일의 복장에 필수적인 스커트 바텀대, 코르셋(corset) 등 인체 보정용 속옷이 제거되고 스커트의 길이가 축소된 단순하고 기능적인 管狀型(tubular) 스타일의 복장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이 歐美에서 이미 개량의 단계를 거치고 종래의 복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능성 및 건강상의 폐해가 개선된 합리적인 管狀型 스타일은 브루머(bloomer) 스타일의 여학생의 체조복, 세라(sailor)복 스타일의 교복, 간단복 등 대중여성의 실용복, 즉 작업복, 직장복, 교복 및 아동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적, 실질적인 목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 1) 여학생복

여학생의 양장 제복에 우선하여 업무의 특성상 간호원의 양장 제복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일반 여성의 양장화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양장이 일반 여성에게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것은 여학생의 복장이었다. 당시 새로운 문물에 빨리 접할 수 있으면서 수적으로 대량인 집단은 여학생이었다. 일반인의 생활과 밀착된 여학생들의 복장은 복장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양장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제복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1) 체조복

활동성이 요구되는 체조복의 특성상 여학생의

제조복은 일본의 경우 녹명관 시대인 1887년에 일부 여학교에서 제정하였으나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후 여러 종류의 양복 제조복이 소개되었으나 대표적인 것은 브루-머 스타일의 제조복이었다. 1800년대 중엽 서양의 여권주의자에 의해 소개된 브루-머 스타일이 일본 여학생의 제조복으로 권장된 것은 1905년이었으며 1915년경에는 일본 전역에 확산되어 여학생의 제조복으로 착용되었다.<sup>18)</sup> 한국의 경우 제1회 全朝鮮女子庭敎大會(1923) 당시 브루-머 스타일의 제조복이 나타난 이래 여학생의 제조복으로 착용이 증가되었다.<sup>19)</sup>

## (2) 교복

일본에 있어서 여학생의 양장 제복은 1885년경 일부 여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녹명관 시대 이후 國粹主義의 대두로 인해 여학생의 복장은 대부분 海老茶袴 스타일의 개량복으로 제정된 이래 袴 스타일은 양장교복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여학생의 대표적인 복장이었다.

이후 여학생 교복의 양장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1915년경 양장제조복이 확산된 이후였으며, 흰 블라우스에 점퍼 스커트 등 당시 제시된 여러 案 중에서 제복으로 채용되어 널리 확산된 것은 세라복 스타일이었다. 세라복 스타일의 복장이 최초로 제복으로 제정된 시기는 1919년(東京山脇高女)이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개량복 스타일의 교복에 비해 경쾌, 청결, 간소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되어 이후 전국의 여학교에 보급되었다.<sup>20)</sup>

한국에 있어서 여학생의 양장 제복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1907년(숙명여교)이었으나 몇년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여학교는 통치마 적고리의 개량복 스타일의 제복이었다.<sup>21)</sup> 이후 세라복 스타일의 양장 제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서양 문화의 유입 경로가 대부분 일본을 경유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일본에 비해 지연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최초로 세라복 스타일의 제

복이 제정된 1919년 이후 한국에 소개되어 1930년대에는 점차 여러 학교로 보급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학생 복장은 제조복, 교복의 순으로 양장화가 진행되었으며 세라복 스타일은 1940년대 여학교 교복이 개정(일본: 1941, 한국: 1942)될 때까지 통치마 및 海老茶袴 스타일의 제복에 대신하여 여학생의 대표적인 양장 제복으로 착용되었다. 한편 물자절약의 차원에서 개정된 1940년대 당시의 교복은 수세미 칼라의 상의에 주름없는 스커트로 된 양장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일반 여성들 간에 양장 보급이 증대되었을 때로써 제복의 특성상 획일적이고 검소한 여학생 제복에 비해 일반 여성의 양장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착용되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복식계에서 차지하던 여학생 복장의 비중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양장의 선구자로서의 역할도 변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것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2) 일반 여성복

### (1) 아동복

여성복의 양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여성 양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이외에 당시 부담이 될 정도로 高價였던 양복 구입비에도 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양복의 제작 및 관리법 등에 관해 전문 강습소, 신문사 및 여성 잡지사에서 강습 및 誌上講座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강습 및 강좌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의 경우 1910년대 였으나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20년대였다. 1922년 공포된 신교육령은 입학 연령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과년한 여성들은 정규교육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정 경제 및 사회진출을 위한 목적에서 재봉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재봉기술은 당시 새로운 의복인 양복제작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신

18) 劑藤祥子, 洋服化への過程に見る着裝變遷誘因, 日本服飾學會誌 8號(1989), pp.62~63.

19) 이상례, 한국스포츠웨어의 변천에 관한 고찰, 세종대대학원, 1985, p.25.

20) 戸叶光子, 制服考, 文化女大研究紀要 14輯, 1983, p.139.

昭和女大被服學研究室, 前掲書, p.446.

21) 남윤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대학원, 1989, p.181.

22) 매일신보 1942. 3. 19.

분, 잡지등 대중 매체에서는 가정 봉제를 목적으로 양복 제작에 관해 강습 및 지상 강좌를 하였다. 또한 당시 여성 대상의 강습소중 80%가 洋裁, 和裁, 手藝를 교습하는 곳일 정도로 재봉 및 양재 강습소는 증가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강습소 및 대중 매체를 통해 아동 및 여성 양복, 와이셔츠, 잠옷, 에프론, 속옷 등의 제작법이 교습되었는데<sup>24)</sup> 그 결과 1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동복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이었다.

갖은 세탁이 필요한 아동복의 속성상, 완성된 의복의 형을 해체, 세탁, 봉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한복은 아동복으로 착용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배제됨으로써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뿐 아니라 기능성과 착용감이 좋은 양복은 아동복으로서 점차 그 효용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에 있어서도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아동복 및 여성복의 양장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잡지등 대중 매체와 단체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여성 작업복을 홍보하여 활동복으로서의 여성 양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성복 및 형지(pattern)에 대한 통신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복 및 일본 여성에 적합한 양복의 제작에 관한 강습을 하여 가정 봉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양복의 구입비가 고가인 것은 양복의 장점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쉽게 일반화될 수 없었던 장애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때 신문 잡지등의 대중 매체와 강습소를 통한 일련의 복장 개선 운동은 양복 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킴으로써 가정 봉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에 비해 제작법이 간편하고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아동복이 우선적으로 제작, 착용됨으로써 아동복의 양장화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또한 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양복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양장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2) 직장복

일본의 경우, 직장 여성의 양장은 1910년대에 시작되고 있다. 카페의 여급과 극장 안내원 등이 부분적 양장인 에프론 착용을 시작한 것이 각기 1912년, 1913년이고 버스 여차장이 완전한 양장 제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 1919년이었다.<sup>25)</sup> 1920년대 이후에는 사무원, 교원, 판매원, 극장 안내원, 현금 출납원, 미용사 등 직장 여성복이 양장화 되었는데 당시의 양장은 바지를 착용한 버스 차장복을 제외한 나머지 제복은 모두 무릎정도 길이의 스커트와 상의로 된 투피스 또는 앙상블 형태였다.

한국의 경우, 1928년 버스 여차장이 양장 제복을 착용하기 시작한<sup>26)</sup> 이후 사무원, 운전기사, 여교원 등의 복장이 점차 양장화 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장 여성복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호개방이 한국에 비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도 그만큼 빨리 시작됨으로써 직장 여성을 위한 기능적인 복장의 필요성이 일찍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들 여성들의 양장이 당시 일부의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직장 여성의 근무복이 양장인 것은 여성 양장이 실용복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여성 양장이 시작된 초기, 양장이 일부의 계층에서 예복등 특수목적으로 착용되었던 것에 비해 이와 같이 일반 여성의 직장 근무복 또는 활동복으로 착용하게 된 것은 여성 양장에 대한 위화감이 점차 감소되고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簡單服

일본에 있어서 일반 여성의 복장이 양장화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關東大震災(1923) 및 白木屋百貨店の 화재(1932) 사고였다. 사고 당시의 死傷者中에는 和服을 착용한 여성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만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양장 여성에 비해 화복 착용의 여성은 위험한 순간에 재빠르게 대처하기가 곤란했다는 원인 분석이

23) 鄭世華, 韓國近代女性教育, 韓國女性史 II, 梨大出版部, 1984, p.341.

24) 매일신보 1923. 11. 13, 1926. 4. 7.

25) 石山彰, 前掲書, pp.302~303.

26) 동아일보 1928. 4. 22.

나오게 되었다.<sup>27)</sup>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여성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복장 개량의 필요성이 고양되었고 그 결과 양장 보급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무렵 나타나 전 여성에게 보급, 확산된 것으로 簡單服이 있다. アップパツパ, home dress, house dress라고도 불리우는 간단복은 自然發生說과 服飾研究家(山脇每子)의 考案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널리 착용되기 시작한 것은 관동진재가 발생한 이듬 해 인 1924년 이후였다.<sup>28)</sup> 원통형의 외형에 반 소매가 붙은 원피스 스타일인 간단복은 입고 벗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단추 또는 후크가 부착되어 있을 뿐 기타의 장식 이 전혀 없는 간단한 형태였다. 이 옷은 몸에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압박 또는 구속감이 전혀 없었고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였으며 구성이 간단하여 가정 봉제가 가능한데다 완제품의 가격 또한 저렴하였다. 당시 여성 양장의 최저 가격이 24円인 것에 비해 간단복은 1円 이하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sup>29)</sup> 이와 같이 실용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간단복은 低所得層의 여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었고 계속하여 상류층 여성에게도 그 착용 범위가 증대되었다. 종래의 화복에 비해 실용적이고 간편한 데다 시원하기까지한 간단복은 그 편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여름철 복장으로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점차 착용이 증대됨에 따라 간단복의 형태는 처음의 간단하고 無裝飾的인 스타일에 칼라, 밴드, 케-프(cape), 단추 등 장식적인 기능이 첨가되어 다양하게 되었다. 이후 간단복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아동 및 여성복으로 널리 착용되었는데 통치마나 투피스 스타일의 양장에 비해 간단복은 경제적, 실용적인 복장으로 인식되어 가정복, 외출복, 작업복 등 여성의 활동적인 여름 옷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단복은 여름철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 여성을 중심으로 널리 착용된 최초의 여성양장

이었으며 동시에 여성복은 동복에 비해 하복이 우선적으로 양장화 되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한·일양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4) 標準服

1937년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물자부족과 함께 초래된 비상시국은 복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통제와 연결되어 전 국민에게 획일적인 복장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자 절약과 공습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2년 제정된 女性用 標準服은 甲型(양복형), 乙型(韓, 和服型), 活動表(1호: 스텍스, 2호: 몸빼(モンペ))로 구분, 제정되었고 이의 보급을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성 단체, 백화점, 잡지사의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팜플렛을 작성, 배부하고 제작법의 강습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sup>30)</sup>하였으나 이중에서 스텍스, 몸빼 등의 활동의가 戰時女性服으로 착용되었다. 이것은 한·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갑, 을형의 표준복은 한복이나 화복에 양복을 절충한 개량복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전시에 요구되는 기능성이 결핍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여성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었다. 양장 제복을 착용한 여학생, 직장여성 및 간단복 착용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증가 즉, 여성 양장 인구의 저변 확대는 간편하고 기능적인 양장의 편의성을 인정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더욱이 防空用服裝에 요구되는 간편성, 기능성은 양복에 대해 저항감을 갖는 여성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므로 개량복에 비해 바지 스타일이 효율적임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젊은 여성은 스텍스, 나이든 여성은 몸빼를 비상시의 복장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 당국의 복장에 대한 통제는 한국의 경우 좀더 심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몸빼 착용은 1940년 애국부인의 명칭으로 가정부인이 방공훈련을 받으면서 부터 시작되었다.<sup>31)</sup> 그러나 바지 형식의 옷을 外衣로 입어

27) 村上信彦, 前掲書Ⅱ, pp.107, 232.

28) 昭和女大被服學研究室, 前掲書, pp.461~462.

村上信彦, 前掲書Ⅲ, p.118.

田中千代, 日本婦人洋裝史, 吉川弘文館, 昭和 62, p.493.

29) 田中千代, 前掲書, pp.379~381.

30)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下, 文化出版局, 平成 1, pp.232~235.

31) 매일신보 1942. 7. 4.



본 적이 없던 한국 여성들이 몸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착용하지 않게 되자 정부 당국에서는 관공서, 공공 집회장의 출입 및 전차, 버스의 승차 시 몸빼를 착용해야만 가능하게 하는 몸빼 必着運動을 전개하였다.<sup>32)</sup> 이와 같이 몸빼는 당국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착용이 시작되었으나 점차 방공훈련 및 노력동원이 빈번해지면서 간편하고 활동적인 의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몸빼는 여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장점이 착용되어 나이든 여성을 중심으로 착용자가 증가되었다.

그밖의 당시는 이와 같은 표준복의 강요 이외에 복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통제가 심했던 때로 여교원 및 朝鮮靑年女團員 등의 제복을 양장으로 제정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sup>33)</sup>

그런데 당시 물자절약의 차원에서 장식적인 것이 배제된 실용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 실용적, 실질적인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되고 비상시의 복장에 요구되는 간편성, 기능성은 양복에 대해 저항감을 갖는 여성에게 양장의 편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비상 시국에 적합한 이상적인 복장으로 양장이 제정, 강요되었다는 것은 확실적인 통제와 인위적인 변화가 시도됨으로써 의복을 통한 개성의 표현이 억제된 면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복의 양장화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결과가 되었다.

#### (5) 色服獎勵

복장개량운동 중에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色服獎勵運動인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당시 한국인의 대표적인 服色이었던 淡色 또는 白色 衣服은 정결을 위한 잦은 세탁과 針線으로 인해 가사를 담당한 여성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였다. 더욱이 잦은 세탁과 함께 방망이로 두드리는 세탁 방법은 의복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비경제적인 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을 희생시키고 비경제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개된 것이 색복장려운동이었다.

근대에 있어서 색복장려에 관한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05년 이후이다. 官民의公私의 의복을 반드시 靑, 黑, 紺, 紫色으로 하고 1906년 1월 1일 이후로는 白色 및 淡色 의복은 일체 금한다는 服色訓令 아래 黑, 灰, 紫, 靑, 紺色등이 의복의 색으로 제시되었다.<sup>34)</sup> 왕후가 女侍讀에게 입궐할 때 彩色된 복장을 하도록 한 것<sup>35)</sup>이나 통치마의 색이 흑색 및 이에 준한 진한 색인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색복장려운동은 日帝에 強占된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1920년대 이후 1930년대에는 黑色衣着用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22년 金瑞圭(1922년 당시 함경북도 參與官)가 知事會議(총독부 주최)에 건의한<sup>36)</sup> 이후 색복장려운동은 정부 당국의 주도에 의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경북 안동군의 실시 사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는 흑색이나 회색의 옷을 착용할 것, 면직원은 일반에 우선하여 모범적으로 黑衣를 착용할 것, 경찰 서장과 협의하여 일제히 黑衣를 착용하도록 광고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면에 출장할 때에는 黑衣 착용 선전에 주력할 것등 5개조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공무원과 학생은 물론 일반인의 黑衣 착용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력하게 실시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처 모두 비슷하였으며 그 실시방안으로는 군 단위로 염료를 공동 구입하거나 공동 염색소를 설치하고 염색 강습, 좌담회, 캠페인 또는 선전 표어를 모집하기도 하고 戶別訪問을 통한 개별 지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이 크게 효과가 없자 면사무소나 금융조합 등 관공서 입구에 '白衣着用者는 출입금지'라고 써붙이고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흰색의 옷 뒤에 '染', '色', '白衣의 中毒病者'라고 먹물로 쓰거나 刻印하여 찍어주었다. 또한 공사장의 일부도 백의 착용자는 금하는 등 흑의 착용을 무리하게 강요하였다.<sup>37)</sup> 그런데 백의는 오랜 세월 계속되어온 한국인의 습관적인 복색이었고 더욱이 일제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데에서 기

32) 매일신보 1944. 8. 5~9. 7.

33) 매일신보 1937. 6. 24, 1938. 7. 20, 8. 6, 1941. 3. 5, 10. 4.

34) 황성신문 1905. 10. 21, 1908. 2. 14, 만세보 1906. 11. 22.

35) 황성신문 1909. 9. 30.

36) 매일신보 1933. 7. 25.

인된 민족적 감정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시행 방법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당시 색복장려는 흑색 직물을 보급하기보다는 통념적으로 흑색 및 이에 준하는 회색 염료를 공동 구입하여 가정에서 염색하는 간단한 방법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염료 및 염색 방법에 의한 지식 및 기술이 전혀 없는 일반 부녀자에게 염색을 하도록 함으로서 여러가지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공장에서 백색 직물을 목적으로 가공, 완성된 직물을 재차 염색하는 데 따른 시간과 경비의 낭비, 흑색이 점차 변, 퇴색되었을 때의 이상스러운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습관적인 복색을 깊은 연구 없이 간단히 바꾸려 했기 때문에 색복장려운동은 성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국민에게 복색 및 염색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어 복색이 다양화되는 데에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이후 일반 여성이 주체가 되어 착용된 양장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착용되었다. 착용의 주체가 일반 대중 여성이고 착용한 복장이 작업복, 직장복, 교복, 아동복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복으로 착용되었다는 것은 여성 양장이 儀禮的인 特殊服이 아닌 일상복으로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Ⅲ. 結 語

20세기의 복장 혁명이라고 하는 여성복의 양장화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19세기 말 이래 전개된 복장개량운동의 결과이다. 복장개량운동의 기본 정신은 건강에 해가 없이 간편성, 기능성이 요구되는 보건 위생과 편의적인 측면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구된 복장의 합리주의였다. 이와 같이 복장에서 추구된 합리주의는 학교 교육 및 여성단체, 정부 당국과 연계되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된 결과 여학생의 재복, 직장 여성복, 표준복,

색복 등 실용적인 양복의 착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 잡지 등의 대중 매체와 전문 강습소를 통한 재봉 기술 및 양복 제작에 관한 강습 및 지상 강좌는 가정 봉제를 가능하게 하여 양복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제시된 여러 가지의 복장 개선안을 널리 홍보하여 당시 사회적 인식도에 적합한 여성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등 여성복에 대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여성 양장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공인을 받고 여성양장이 궁중을 중심으로한 상류층 여성의 예복으로 제정된 것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생, 상인, 권력자의 칙등 사회적으로 특수한 신분의 여성들에 의해 양장이 시작된 것은 한·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류층 여성을 포함한 이들 특수한 계층의 여성양장은 일반여성에게는 위화감으로 작용됨으로서 일반여성의 양장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일반 여성의 양장화는 1920년대 이후 대중여성이 주체가 되어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복으로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데다 서양 문화와 접촉이 시작된 시기 및 일제 강점기를 거친 특수성 때문에 한·일 양국의 경우 복장 개량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비슷하고, 그에 따라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복이 양장화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각기 제작자 및 착용자에 의해 새로운 복장 스타일이 고안되고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각각 독자적인 스타일로 복장개량운동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어 한·일 여성복의 양장화는 성립되었다.

### 參 考 文 獻

- 독립신문
-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문
- 제국신문
- 매일신보
- 동아일보

37) 매일신보 1932. 1. 15, 7, 28, 11. 19, 11. 27, 12. 7, 매일신보 1933. 2. 11, 2. 22, 10. 26, 매일신보 1934. 2. 24, 10. 8, 11. 6, 1935. 3. 1.

38) 文定昌, 色服奨励カニ關する一考察, 朝鮮地方行政 13-5(昭和 9. 5), pp.76-77.

- 女學世界
- 女學雜誌
- 明治ニュース事典 1-8,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86.
- 姜徹 編,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昭和58.
- 권혜영, 한국여성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1983.
- 남윤숙, 여학생교복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도여자사범대대학원, 1972.
- 남윤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대학원, 1989.
- 남윤숙, 한국여성양장의 효시에 관한 연구, 복식 16호(1991. 5).
- 大久保春, 明治 大正期洋裝普及の過程, 服飾美學20號, 服飾美學會, 平成3.
- 大正翼贊會文化部, 新生活と服飾, 翼贊圖書刊行會, 昭和17.
- 林省三, 色服獎勵運動に就て, 朝鮮地方行政 13-10(昭和9. 10).
- 文定昌, 色服獎勵に關する一考察, 朝鮮地方行政 13-5(昭和9. 5).
- 유수경,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1989.
- 이상례, 한국스포츠웨어변천에 관한 고찰, 세종대대학원, 1985.
- 이송희, 개화기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대대학원, 1983.
- 外務省通商局編纂, 韓國官民着用衣服色の制限廢止, 通商彙纂61號, 博文館, 明治38. 10.
- 西久榮, 女子運動服の體育史的考察, 東京家庭學院大學紀要4(1964).
- 新東亞編輯室(鈴木 博 譯), 朝鮮近代現代史年表, 1980.
- 實踐女子學院 60年史, 昭和34.
- 小川安郎, 國民服令と國民衣生活, 服裝文化 NO165(1980. 1).
- 松田歌子外, 明治, 大正, 昭和前記の學童の衣生活とその背景, 日本服飾學會誌10號(1991).
- 朝日新聞, 20世紀の軌跡, 1980. 10.
- 中山千代, 日本婦人洋裝史, 吉川弘文館, 1987.
- 鄭世華, 韓國近代女性教育, 韓國女性史Ⅱ, 梨大出版部, 1984.
- 井上清, 日本女性史, 三一書房, 1990.
- 青柳淳郎編, 明治99年, オリオン社, 昭和41.
- 村上信彦, 服飾の歴史 I-V, 理論社, 1955, 1956.
- 芦原節子, 開化期の衣服, 岐藝文出版社, 1977.
- 遠藤武, 石山彰, 寫真にみる日本洋裝史, 文化出版局, 1980.
- 李貞順, 韓・日の開國期における政治意識と服飾について, 日本服飾學會誌10號(1991).
- 齊藤佳三, 國民服の考案, 秋豐園出版社, 昭和14.
- 朝倉治彦外, 事物起源辭典, 東京堂出版, 昭和45.
- 和洋學園創立70周年記念誌, 昭和45.
- 萩原美代子, 運動服よりみた女子體育, 文化女大研究紀要8輯(1977).
- 横川公子, 近代洋裝の受容, 服飾美學14號. 15號, 服飾美學會誌, 昭和60, 61.
- 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60年史, 昭和9.
-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 下, 文化出版局, 平成1.
- 戸叶光子, 制服考, 文化女大研究紀要第14輯, 1983.
- 齊藤祥子, 女學雜誌にみる改良服を中心として着裝論の檢討, 日本服飾學會誌5號(1986).
- 齊藤祥子, 洋服化への過程に見る着裝變遷誘因, 日本服飾學會誌8號(1989).
- 齊藤祥子, 明治大正期の女學校の體操開設が女子着裝に與えた影響とその先驅的役割, 日本服飾學會誌4號(1985).
- 岡村榮次郎編, 東京婦人子供服業界 30年史, 東京婦人子供服製造卸協同會, 昭和35.
- 山根正次, 改良服圖說, 伴鶴堂藏版, 明治 35.
- 大橋又太郎編, 衣服と流行, 博文館, 明治 28.
- 柳田國男, 明治大正史 世相編, 平凡社東洋文庫, 昭和 42.
- 昭和女子大學被服學研究室編, 近代日本服裝史, 昭和 46.
- 和歌森太郎外, 流行世相近代史, 雄山閣, 昭和 45.
- 澁澤敬三, 明治文化史 12, 原書房, 昭和 54.
- 日本風俗史學會篇, 日本風俗史, 雄山閣, 昭和 43.